

## ■訂正

92~95の課題文に誤りがありました。ここにお詫びして訂正いたします。

### 과 제 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우리는 옷을 살 때 똑같은 옷을 고르지 않는다. 옷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외모를 볼 때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흔히 “저 연예인 참 미인이지 않니?” “아니 재가 무슨 미인이야. 다른 사람이 훨씬 예쁘고 잘생겼지” 등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 역시 서로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자로 잰 듯 정확한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조선 시대 신윤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는 미인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미인은 같지 않을 것이다. 조선 시대의 미인도를 보면 둥그스름한 얼굴에 쌍꺼풀이 없이 얼굴 윤곽이 밋밋해 오늘날의 미인에 대한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양귀비가 지닌 아름다움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지닌 아름다움 역시 다를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시대의 가치관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日本語訳】

「美しい」と感じることはとても主観的な感情である。同じものに対してでも、皆が美しいと感じるのではない。私たちは服を買う時、同じ服を選ばない。服に対して人それぞれ違う美しさの基準を持っているからである。人の外見を見る時も人それぞれ違う判断をする場合が多い。私たちはよく「あの芸能人、すごい美人じゃない?」「彼女のどこが美人だっていうの。他の人のほうがずっときれいで美人よ」などというやり取りをする。やはりそれぞれの基準が違うのである。美しさを感じるのは、物差しで測ったように正確な理性で判断されるのではない。感情によって主観的に認識されるのである。

美の基準は時代によっても、地域によっても違ってくる。朝鮮時代の申潤福シンユンボクの美人図に登場する美人の美しさと、現代の美人は同じではないはずだ。朝鮮時代の美人図を見ると、丸みを帯びた顔に目は二重ではなく、顔の輪郭がのっぺりしていて、現代の美人に対する認識とはずいぶん違うということがわかる。

中国の楊貴妃が持つ美しさと、エジプトのクレオパトラが持つ美しさもやはり違いただろう。このように人間が感じる美しさというものは、時代の価値観や地域的な特性によっても変わってくるものである。